

보도해명자료 (‘18.10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

제목 : “한미 FTA 개정 ... 2040년 미국차 점유율 3배 증가”
(연합뉴스, YTN 등)

1. 기사내용

- (시장점유율)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‘17년 2.9%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‘40년 최대 9.0%로 3배 이상이 되고, ‘40년까지 최대 총 245만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
- (환경기준)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“느슨한 미국의 기준”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(시장점유율)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,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40년 9%가 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
 - 한미 FTA 개정협상 영향평가(산업연구원 주관)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중 2040년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대 9%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, -‘40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판매를 16.5만대로 전망함
- ※ 245만대는 동 최대치 시나리오에 따라 ‘17~40년까지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 추정량을 누적하여 합산한 수치
- 9% 시장점유율이라는 최대치 가정하에서도 제작사별 판매는 대부분 25,000대를 넘지 않아,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

- (환경기준)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, 자동차 환경기준 분야에서 느슨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

- 개정협상 결과, 현행 기준(‘16 ~‘20년)은 그대로 유지됨
- 차기기준(‘21 ~‘25년) 설정시 미국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과장(044-203-5940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